



왕십리



새로운 100년으로 출발하는
왕십리교회

2008년
세번째호
격월간지

평신도신학 / 성도가 마음을 지켜야하는 이유 - 박충권 부목사

특별기고 / 전제부터 잘못된 허망한 '예수탐험' - 문병호 협동교육목사

기획특집 / 100년의 세월을 넘어 왕십리교회의 어제 - 최흥순, 임종진, 윤근창 장로

2008년 사랑마을 온가족예배

선교사편지 / 다시 은혜의 땅으로 ... 제 2의 출애굽과 부흥을 위해 - 황기쁨 선교사



김순옥 집사



지난달 '칭찬합시다'의 주인공 이다빛 어린이가 2학년때 성경고사대회를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항상 밝게 인사해주신 분을 추천했습니다.

쫄 기 자 : 이다빛 어린이와는 어떤 사연이 있으신가요?

김집사님 : 이다빛은 작년에 성경고사대회 준비로 만났는데 정말 총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남 다른 아이였어요. 그때 함께한 시간이 좋은 만남이 된 거 같네요.

쫄 기 자 :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있는 부서는요?

김집사님 : 유년부 교사(39년, 1976년 청년부시절부터 섬기고 있음.), 한우리크로마하프, 호스피스봉사단, 왕십리교회 경로대학 교사 등

쫄 기 자 : 교회에서 여러 부서를 봉사하고 계신데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김집사님 : 전에 몸이 많이 안좋아서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에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쫄 기 자 : 기도제목이 있으신지요?

김집사님 : 남편을 청년부때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열심히 같이 섬겼는데 지금은 예배만 보고 가서 같이 봉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딸(김나래, 고등부 3학년)이 올해 수능시험 보는데 좋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들(김슬기)이 군입대 중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도록...

쫄 기 자 :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김집사님 : 지금은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겸손히 기도로 나아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하나가 됩시다.

쫄 기 자 : 다음 칭찬주인공으로 추천하실 분?

김집사님 : 새벽마다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허진오 형제를 추천합니다. 남들은 나오기도 힘든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멀리서 반주로 봉사하는 형제를 통해 많은 은혜 받습니다. 

취재 : 이종익 기자

Wangsimni

Magazine

Contents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 필 : 배종호 장로
지 도 : 박충권 목사
주 간 : 이중훈 집사
기 획 : 장숙현 집사
취 재 : 박병수 집사(팀장), 임현석 집사,
지은정 집사, 문승환, 서주은
교 정 : 최지영 집사(팀장), 김영희 집사,
공하나
디자인 : 김현정, 최영주
일러스트 : 유태욱 집사
객원기자 : 서명은 집사, 이수정, 이윤혜,
유정림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편 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신문사
(출판실 : 02-2295-0114)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 : 02-2299-1011)

인쇄 및 제작 :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85-4109)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FAX : 02-2292-0309

- 2 칭찬합시다 / 김순옥 집사
- 4 출애굽단상 / 금강산의 기도
- 5 평신도신학 / 성도가 마음을 지켜야하는 이유
- 7 독자투고 / 강물처럼 물방울처럼
- 8 특별기고 / 전제부터 잘못된 허망한 '예수탐험'
- 13 독자투고 / 백일홍
- 14 왕십리 이모저모
- 16 기획특집 1 / 100년의 세월을 넘어 왕십리교회의 어제
- 18 기획특집 2 / 100년의 세월을 넘어 왕십리교회의 오늘
- 24 하나님 나라 사람들
- 유치부 지킴이 / 송재연 집사
- 26 외국어 예배 / 제 5차 국제심방 보고서
- 27 선교사 편지 / 다시 은혜의 땅으로... - 터키선교사
- 28 우리집 작은 생각, 큰 행복 - 아이들 건강식
- 30 가정예배
- 34 冊이랑 樂
- 35 일상의 작은 그림 / 가족



기도

금강산의



오치용 담임목사



옛 기독교수양관이 있던 장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꿈꾸면서 추진되었던 제1회 금강산평화기도회가 북한의 금강산관광객 총격사망사건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우리 나라의 현 상황이 잘 표현되는 사건인 것이다. 언제든지 돌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한 것이 한반도의 형편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깊은 뜻이 발견된다.

이 일을 통해 금강산에 대한 의미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와 어떤 자세를 갖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금강산을 소개하는 문구는 이렇게 되어있다. 'The Biggest Diamond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과연 금강산은 그 소리를 들을만하다.

처음 방문했을 때 놀라게 되는 것은 물의 맑고 깨끗함이었다. 파아란 초록빛감도는 계곡의 물길을 볼 때 감탄스러웠고, 아름다운 계곡 산봉우리들이 감탄스러웠다. 한 번은 산정산에서 주위를 바라볼 때 모든 봉우리들이 연합하고 살아움직이면서 전체가 한 쪽으로 연결된 그림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된다. 단지 산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인격체같았다. 그 품이 무언가를 말해 주는 듯 했다.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찬양문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금강산은 그 품에서 느끼고 언어를 쏟아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말씀들이 그 안에서 솟아나고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으나 희미했는데 이번에 밝혀지는 것 같았다.

두 발의 총성으로 아까운 한 분이 희생되었다. 그

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희생은 이제 우리에게 기도로 돌아오고 있다. 금강산이 그 희생을 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라. 화평하라. 생명을 아끼라. 서로 존중하라. 하나되라. 금강산에서 진정 하나되라.

금강산이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우리는 금강산을 방문할 자격이 있다.

그 아픔을 그 희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산이 아름답다고만 하면 의미없다.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산에는 주님의 영성이 깃들어있기 때문이다. 지난날 그곳에서 선조들이 기도한 음성이 지금도 메아리치고 있지 않은가. 그 소리를 들으러 가야 하겠다. 그 음성에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

'주여, 이 산에서 민족이 하나되게 하시고 총 대신 복음으로 심령을 바라보게 하소서. 북녘 땅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산, 금강에 시온산을 세워서 온 세계 선교의 기도 센터가 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을 엑소더스 시키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날을 향해서 먼저 마음 속에 금강산의 기도를 들어야 한다. 주여, 이 산에서 한반도의 평화가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마음 속의 금강산의 기도센터에서 최고로 값진 선물을 동시에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 분. 그 귀한 선물인 분. 이제 마음껏 기도해드리고 천국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됨을 기도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의 기도 소리가 마음 속에서 들려지기를 기원하면서...



박충권 부목사

성도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 4:23)**

1.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목적은 죄 용서로 인한 아버지의 마음 회복이기 때문이다

-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 진정한 신자는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해 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2. 성도의 이중적 신앙생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욥을 통해서 본 우리의 문제〉

- 성경에서 말하는 욥

- ① 욥기 1:1 -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 ② 욥기 1:3 - 가장 훌륭한 자
- ③ 욥기 1:5 - 번제(헌신 : 창 22:13 - 아브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림)

그런데 욥기서에 나타난 욥의 4가지 다른 모습을 살펴보면.

1)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모른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욥 9:11)

2) 기도의 불신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 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욥 9:16)

3)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그 분에게 순종할 뿐 (욥 9:17-22)

4)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 (욥 9:32)

☞ 욥의 이런 모습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지 못하게 하였다 (욥기 3장)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온갖 헌신적인 삶을 산다. 그런데 당신 곁에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삶 속에서 경험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기초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의 해석에 의해 살고 있다. 사실을 해석하고 해석된 내용은 생각 속에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즉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의 문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를 결정짓게 한다.

예) 어린아이의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이 나름 대로 세상을 해석하고 해석된 대로 그 사물을 대하고 해석의 결과로 생활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자신의 주관이 생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는 상황을 해석하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4.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쓴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

엡 4:26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을 품고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쓴 뿌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 12:15절에서 “너희는... 쓴 뿌리가 나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고 했다. 또한 쓴 뿌리가 생겨나면 얼굴에 웃음(미소)을 짓지만 마음은 온갖 가증한 것을

지니는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잠언 26:25)에서 말한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잠 26:25)

그런데 쓴 뿌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악한 감정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쓴 뿌리를 우상이라고 했다.

겔 14:1~5 -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왔으니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최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최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롬 1:25 -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욱되게 하게 하셨으니”

갈 6:6 -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우상의 생산 공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상처를 받게 마련이다. 이런 상처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을 내가 조절 하기는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이를 조절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성경적으로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를 갖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의 성화(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가 방해를 받는다.

성경적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싶을 때 묵상할 말씀 :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시 37:8-9)

강물처럼 물방울처럼

김성 전도사 / 중국어 예배

난 예수님의 인격을 사모하며 그 인격에 더 다가서기 갈망한다.
난 예수님의 사역을 사모하면 그 사역에 더 다가서기 갈망한다.

그분의 사랑이 싱긋한 봄바람이라면 나는 들에 마른 풀과 같다.
언젠가부터 푸른 생명을 꿈꾸면서 희망을 가슴에 간직하였었다.

그분의 사랑이 따스한 햇빛 이라면 나는 강변 얼어붙은 바위와 같다.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속 까지 따스해지였었다.

넘쳐흐르는 한강수는 어디로서부터인가?
창조주의 은총에 감동되어 통회하여 흘렸던 설악산의 눈물이 아니겠는가?

거위 깃털같이 하늘을 누빈 저 흰 구름은 어디로서부터인가?
저 높은 천국을 사모하던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져 즐겁게 뭉쳐 다니는
한강의 물방울들이 아니겠는가?

난 영혼에게 다가서리.
넘쳐흐르는 강물처럼.
난 하나님의 사역에 다가서리.
하늘에서 즐겁게 뭉쳐 다니는 물방울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문병호 협동교육목사 /총신대학교수

전제부터 잘못된 허망한 '예수탐험'

“SBS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 비판”

▶ 편집자 주 - 지난 SBS방송사에서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4부에 걸쳐 방영한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고자 7월 16일자 기독교신문에 게재하신 본교회 교육협동목사로 계시는 문병호 총신대 교수로 부터 원고를 받아 기독교신문을 접하지 못한 일반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실었습니다.



주일 심야에, SBS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신의 길, 인간의 길’이 공중파를 타고 안방에 흘러 들어왔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자의 몸에서 난 자연인으로서 단지 지혜로운 선지자의 삶을 살다 간 사람의 아들에 불과했다는 반(反)기독교적 메시지를 여과 없이 담고 있었다. 심지어 예수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되었다.

성육신의 교리가 부인되니 대속과 부활의 교리가 당연히 조롱거리로 여겨졌다. 부활은 기껏해야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죽은 자의 환생 설화를 종교적 욕구에 맞추어서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되었다.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부활의 교리를 부인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공공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방송된 것이다. 부활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의 끝 시간!

프로그램은 4부로 구성되었다. 제 1부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에 이어서 제 2부 ‘무하마드, 예수를 만나다’가 두 주에 걸쳐서 전파를 탔으며, 제 3부 ‘남태평양의 붉은 십자가’와 제 4부 ‘길 위의 인간’이 한 주

에 함께 방송되었다. 제 1부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시 존재하던 신화와 설화를 조작해서 만든 가상의 인물에 불과했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제 2부에서는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하마드의 역사적 행적을 예수의 생애와 유비하고 있다. 제 3부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종교성과 종교 행위의 본질과 특성을 예배와 선교라는 관점에서 전한다. 제 4부에서는 성전(聖戰)의 개념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종교간 화해와 관용에 이르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룬다.

SBS는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이집트, 로마, 터키, 시리아를 아우르는 방대한 현지답사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 2000년 전의 예수의 실제모습은 어떻게 다른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상 최초로 시도되는 이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험”을 수행했노라고 자평하고 있다. 신앙인들의 정서를 헤아리지 않는 무모함과 논의의 공정성을 상실한 무분별함에 있어서는 “사상 최초”가 될지 몰라도 “역사적 예수에 관한 탐험”은 아주 해묵은 것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성경적 진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특히 19세기 초반으로부터 중반을 거쳐서 데이비드 스트라우스(David F. Strauss)와 에른스트 르낭(Ernst Renan)을 위시한 소위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은 역사라는 이름의 예수 “탐험”을 이성이라는 노를 저으며 거침없이 감행했다. 그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 부활 등을 단지 신화나 설화 정도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루돌프 볼트만(Rudolf Bultman)에 이르러 극점에 달한 성경비평학자들에 의해서도 공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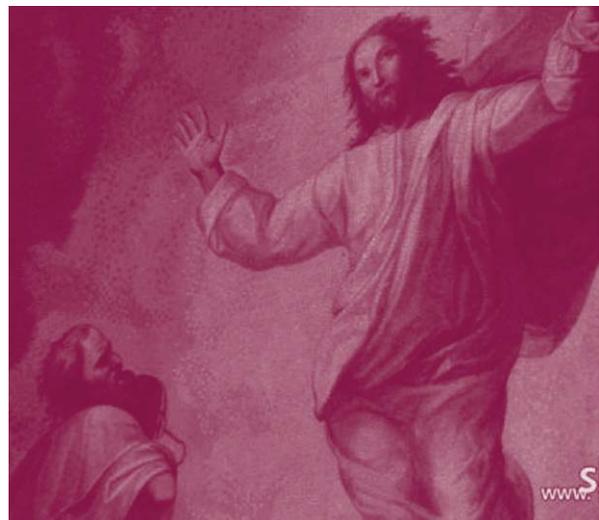
오늘날 역사적 예수 연구는 성경비평을 넘어서서 문화적이거나 문헌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신의 길, 인간의 길’ 가운데 인터뷰어로 나오는 옥스퍼드 대학교 유대학 교수인 버미스(G. Vermes)와 미국 역사적 예수 연구회에서 활동하는 크로싼(J. D. Crossan)은 이러한 경향을 대변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하여서 이들은 예수는 역사상 실재한 인물로서 “지혜로운 사람(an wise man)”이었을 뿐 메시아도 아니었으며 신도 아니었다고 단언한다. 예수는 단지 신격화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예수도 모세와 무하마드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된 선지자였는데, 다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신화적으로 신격화했다는 것이다.

예수는 이렇듯이 모세와 무하마드와 다름없는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므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근원에 있어서 모두 동일하다고 ‘신의 길, 인간의 길’은 말한다. 이 세 종교가 “신의 길”로는 하나인데 기독교에서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것을 세 갈래의 “인간의 길”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지상의 한 길’에 그 시신이 버려진 순교자 배형규 목사님이 살해당하면서 찾은 하나님과 10발의 총을 쏜 탈레반이 명분을 구하며 부른 그들의 신은 동일했다는 것이다. 순교의 순간, 살해자와 피살자가 함께 동일한 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다.

과연 성경의 하나님과 꾸란의 알라는 동일한 하나님 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시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 2위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부인되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부인된다.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인된다. 아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되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믿는 자만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신의 길, 인간의 길’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deity) 혹은 신성(divinity)에 대한 미망에서 벗어나야만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소통의 길을 열게 된





다는 허망한 논법을 시종 이어가고 있다. 진정 화목의 길, 화해의 길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들이심 곧 예수님의 하나님을 포기하는데 있는가? 예수님의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신의 길, 인간의 길’은 순교자의 죽음의 뜻을 철저히 곡해하고 있다. 기독교가 배척하는 것은 순교의 고난이 아니라 비진리의 악이다. 참 기독교는 어느 순간에도 순교를 피하여 비진리 편에 서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 곳에 기독교는 설 자리를 잃는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라는 초대 교부의 외침은 여전한 역사적 진리이다. 그들은 죽임으로써 스스로 옳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는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말했듯이, “사랑의 시작은 의이다 (principium amoris est iustitia).” 의가 없는 사랑, 진리가 결여된 사랑은 또 다른 형태의 테러이다. 성경에서 전하는 “의(義)”는 생명을 의미한다. 오직 양이 살 길은 목자를 따라서 바른 길로 따라 가는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시다. 이를 믿음이 생명에 이르는 의이다.

과연 공중을 위한 방송이 그저 맹목적인 부지런함으로, 진리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정통 신학의 변방에 있는 비전문적인 한 이론을 부각시킴으로써 기독교를 부인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

소위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역사성이 비판적으로 조명된 이후 이 분야의 연구는 주로 신약신학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다. 오늘날 소위 바울 신학의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는 샌더스(E. P. Sanders), 라이트(N. T. Wright), 던(James Dunn)과 같은 신학자들은 신약의 유대주의적 배경을 중시하는 가운데 소위 역사적 예수 연구의 전통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다. 이러한 신학자들의

입장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이심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칼빈, 핫지, 워필드, 레이몽드 등의 학자들의 입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바울 신학의 새로운 관점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SBS와 인터뷰를 한 크로쌍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함으로써 심지어 역사적 예수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단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학자로서 분류된다.

그런데 ‘신의 길, 인간의 길’의 기본 논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러한 크로쌍의 극단적인 견해 수준을 더 넘어서서 예수의 역사적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까지 나아간다. 이 프로그램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티모시 프레크(Timothy Freke)는 피터 간디(Peter Gandy)와 함께 저술한 “예수의 신비제의(The Jesus Mysteries)”라는 파격적인 책에서 성경의 모든 기사는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신화와 설화들을 미래 목시적인 소망과 섞어서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하는 철학자이다. 프레크는 예수의 탄생, 할례, 성찬식 제정에 관한 기사들의 기원을 미트라스 신화에서 찾는다. 부활은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신화의 재판(再版)에 다름없다고 본다. 성경의 예수는 실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살았던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공한 인물일 뿐이라고 한다. 성전 정결 사건, 요나의 표적 사건 등도 모두 이런 식으로 설명된다.

프레크와 간디는 “예수는 신화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위의 책의 서문에서 참 기독교가 세워지고 그 교훈이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예수가 신화 속의 인물임을 옳게 파악함으로써 가





능하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께서는 누구든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롬 8:9) 그리스도의 존재가 부인되는 곳에 성도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의 생애 자체가 구원의 길이며 그 분 자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이자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역사를 그의 가르침과 분리하여 다룰 수 없다.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무하마드 등과 같은 현자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애와 무관하게 교훈적으로 작용한다. 오히려 생애가 가르침으로부터 분리될수록 교의는 더욱 신비함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생애는 그 자체가 복음이 되기 때문에 역사상 실재하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이 부인되면 모든 교리가 파괴되고 무화(無化)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

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다.

오직 예수님 한 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셨다. 그 분께서는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분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과 함께 자녀 된 자들로서 또한 후사가 되어서 그 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리에 선다. 오직 이 자리가 우리가 설 자리요, 화목의 자리요, 관용의 자리요, 순교의 자리이다. 무하마드는 꾸란과 칼을 들고 '인간의 길'을 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버리시고 빈손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신의 길 그리고 인간의 길'을 함께 걸어 가셨다. 우리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그 분과 함께 그 분의 길을 좇아간다.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접근이 혹은 신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철학자들은 예수의 삶은 그것이 우리에게 의해서 이성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때에만 역사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여긴다. 일부 신학자들도 비록 계시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이론에서 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 가운데 신학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Finitum non capax esse infiniti)”는 말을 불가지론에 대한 변명거리로 삼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그 분께서 스스로 알려 주심으로써 그러함을 인정한다. 즉 불가해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알되 은혜로써 안다는 계시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에 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로서 그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요 1:14).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자신의 어떠한 심을 진리로서 계시하실 때 동시에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受納)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이른다. 오직 예수 외에 구원에 이를 다른 이름도 다른 길도 없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완전하고 충족하게 주셨다. 신약성경이 계시하는 진리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역사상 아무도 그것을 그 자체로서 비판할 수 없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한 사본들이 약 5,000여개 존재한다. 그러나 ‘신의 길, 인간의 길’에서 마치 절대 진리인 양 인용하고 있는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타키투스의 사본들은 많아야 10개미만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는 것이 많다. 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은 멀리하고 사람의 작품들과 전승들과 흔적들만 내

세우는가? 그것이야말로 전통적인 이교적, 밀교적 방법 아닌가?

성경은 역사적 예수와 신학적 예수를 분리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역사적 예수는 우리와 전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으며 죄는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다. 그리하여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것이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화평의 길이 된다. 진리가 이러하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순교를 무릅쓰고 무슬림들을 위하여, 유대교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전한다.

‘신의 길, 사람의 길’은 기독교의 계시성을 부인하고 지독한 인본주의적 낙관론에 빠져 있는 유사 종교가들의 편견을 “역사” 혹은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가공하여 뽑아낸 반기독교적 설화를 제시할 뿐이다. 그것은 단지 해묵은, 외진, 일차원적 역사적 예수 탐험의 현대적 영상 처리에 불과하다. 그것이 비진리로 진리를 구축(驅逐)하려는 반기독교적 시대정서에 편승하여 마치 정설인 양 제시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를 경성하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으니,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순종과 죽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훈을 간구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공훈히 여기심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벧전 1:3).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립니다(Soli Deo gloria in aeternum)!

백일홍

조현무 장로 / 사랑의 문고

어둠 밀어 내며 해 떠올랐네
풀과 나무 인사할때
자주빛 붉은빛 백일홍
미소 지으며 안녕이라 하네

매홍선
태국의 제일 높은곳
카렌족 많이 사는 동네의
교회 앞 피어있던 꽃에서
씨 받아 왔지

치앙라이 가나안 출애굽센터
천국 자녀 훈련 시키는 곳에
백일홍 씨 심었는데
썩나고 자라 꽃 피었네

아이들
씨 받아 옮겨 심어
백일홍 밭 만들어 놓으니
아름답고 좋아라

태국의 동북부 우돈타니에 있는
전도 및 개척 훈련원 신학교에
백일홍씨 또 심어
세월 지나면 꽃 피울거야

일백팔십년 전
태국의 북쪽 치앙마이에
복음의 씨 심겼는데
백팔십만송이 꽃피었다.

아이들아 복음의 씨 받아
태국의 동서남북에
고산족 마을에도
복음의 꽃밭 만들어라
사랑과 구원의 씨 맺히도록





▶ 제 3회 다니엘배 탁구대회

지난 6월 22일 출애굽실에서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다니엘 전도회장배 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황인목 형제가 1위를 차지했다.

대회가 끝난 후 3감자탕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시상식과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대회 참석한 한 성도는 "다니엘 전도회가 탁구대회 뿐 아니라 산행 등을 통해 부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30대 남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재 : 박병수 기자

▶ 장년 1부 여름 수련회

지난 6월 5일~6일까지 양평 엘림교회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최정명 목사를 강사로 모셨으며 특히 예배 전 30분 이상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열린 상황에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수련회 마지막날은 시온찬양대와 함께 즉구를 하는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

취재 : 박병수 기자

▶ 가정사역 세미나

출애굽위원회 가정사역팀은 지난 6월 2일~4일 이웃봉사관에서 가정사역 세미나를 개

최했다.

두란노 아버지/ 어머니 학교 운동 본부장으로 수고하는 김성목 장로와 한은경 권사를 강사로 모셨다. 특히 강사 본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남녀가 본질적으로 다른 점과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사역 세미나에 참석한 한 성도는 "부부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겨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취재 : 박병수 기자

▶ 토요일 중강 예배

지난 6월 28일 왕십리 사랑마을 비전스쿨이 2008학년도 1학기 수업을 마치며 중강예배를 드렸다.

이기학교와 지혜학교를 비롯해 영어, 논술, 미술, 난타, 보컬클리닉(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드럼, 플루트, 클라리넷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목으로 진행됐다.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올바른 인성과 영성을 세우고 인격적 소양과 국제적 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됐으며 오는 9월 2학기가 개강한다.

취재 : 박병수 기자

▶ 100주년 기념 온가족 예배

6월 8일 100주년 기념 온가족예배가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다. 많은 교인들이 우천에도

불구하고 참석, 성공적인 예배축제가 되었다. 체육관 입구에는 전시분과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청년부 찬양팀의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여 기념예배로 이어졌고, 묵도와 찬양등 예배순서가 이어졌다. 오치용담임목사는 설교(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라는 말씀으로 "새로운 변혁이 시작되는 곳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죽으나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런 죽음을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 나아가서 결국 주님 재림시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천국의 국경을 넘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셨다.

이후에 네트워크 협약식(33개 교회 및 복지, 선교단체)을 체결했다. 2부 순서로 바리톤 권용만, 가스펠 가수인 소향, 웅기장이, 외국인 예배, 본교회 초등부, 사회봉사 단체 등에서 찬양과 워십 등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진행됐으며 교인들 대부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즐거운 예배축제가 되었다. 순서 중간에 근속패, 공로패, 감사패 전달식도 있었으며 이후 모든 행사가 끝나고 장충체육관을 청소하고 은혜로운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간 거리상 문제로 근처교회로 옮긴 교우들도 오랜만에 참석했으며 전체 행사의 헌신자와 봉사자들의 수고가 눈에 띄었다.

취재 : 이종훈 기자



왕십리 14





▶ 청년부홈피

청년부의 홈페이지가 'into Peace'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기존의 '자유게시판'만의 기능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웹진(인터넷 잡지)'의 기능을 가지고 돌아왔다.

청년부 주보의 역할을 해 온 'YEM지'와 기존 홈페이지의 역할을 통합했고, 더 나아가 청년부와 왕십리교회 지체들의 삶의 현장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아가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재 : 임현석 기자

▶ 100주년 기념 온가족 예배 평가회

7월 12일 '100주년 온가족예배'가 치뤄진 지 한달여 만에 평가회를 새신자부실에서 가졌다. 오치용담임목사와 최승철장로(10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 이환태장로(100주년 온가족 기념예배 행사위원장)를 비롯해서 각 총무분과 부장장로, 간사 교역자, 총무를 맡은 인수집사등이 이번행사를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자리였다.

공통된 문제점으로는 식사문제로 한두군데서 일괄로 주문하는 방안이 나왔으며, 일부 봉사자들의 불참으로 대체 봉사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주차봉사자나 차량봉사자 등 행사지원 봉사자들이 예배에 집중 할

수없는 불가피한 상황등이 지적되었다.

비록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총무단 전원이 모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큰 행사를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원하는 심정의 헌신으로 성공적인 기념예배였다는데 이의가 없었다.

취재 : 이종훈 기자

▶ 왕십리교회 백봉 성전 6주년

왕십리교회 백봉 성전이 6주년이 되었다. 6년 전 광역목회의 일환으로 기존 남양주 백봉산 기도원이 있는 곳에 백봉산 왕십리교회를 설립했다.

서울 왕십리교회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떨어져 있으나 함께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다. 백봉산 왕십리교회는 남양주 일대의 지역복음화에 힘쓰며 특히 회개와 경건운동을 중심으로 출애굽 5대 운동에 역점을 두고 남양주 지역의 영적 출애굽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금까지 오게되었다.

이번 6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설립 취지를 재 확인하고 본 교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사역을 전개해 나갈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앞으로 Exodus 국민출애굽 운동 차원의 경노가정 복지타운이라는 100년 대계의 비전을 가지고 본교회와 함께 지역을 섬길 것이다.

지금까지 기도와 사랑을 주신분들과 교인들께 감사하며, 앞으로 더욱 큰 사랑을 통하여 함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취재 : 황의연 목사

▶ 남전도 연합 수련회

지난 8월 14, 15일 양일에 걸쳐 백봉산 기도원에서 아론, 모세, 사무엘, 다니엘전도회가 연합하여 2008년 남전도 연합수련회를 가졌다.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황의연목사를 강사로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두 번에 걸친 강의 '베푸신은혜 1 / 십자가 은혜'와 '베푸신은혜 2 / 이루어가는것이 아니라 이루어진것이다.'라는 소제목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15일 폐회예배후 연합회 회장인 조성진집사의 멋진 섹스폰연주와 점심식사후 족구게임 등을 하며 이틀간의 모든순서를 마무리했다.

취재 : 이종훈 기자



100년의 세월을 넘어 왕십리교회의 어제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7월 27일 주일 예배후 원로 장로이신
최흥순 장로와 임종진 장로, 그리고
윤근창 장로와 인터뷰를 가졌다.





1. 안녕하세요, 장로님. 왕십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안에 10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릴적 교회에 대해 기억하시는 대로 한 말씀해 주세요

최홍순 장로:

저는 고향이 함흥입니다. 세살 때부터 아버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죠. 해방이 되자 북쪽에는 공산당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0살 되던 해에 남쪽으로 내려와 왕십리 교회에 오게 됐죠. 왕십리교회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목사님의 순수함에 반해서 다니게 됐죠. 기억에 남은 것은 현재의 교회 터전을 제가 주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은 사람은 여기 임종진 장로입니다. 나보다 한 살 아래지만 우리 형님 장로 될 때 같이 장로가 됐고, 저는 3년 후에 장로가 됐어요.



임종진 장로:
20살에 왕십리 교회 왔습니다. 좋았던 것은 정통 보수주의 신앙을 지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다닐 때에는 여기가 호박 받아있습니다. 주변에는 논밭이 있었죠. 처음에는 교회 부지 700평을 살려고 했다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사지 못하고 피난 갔습니다. 피난 갔다 와서 여기 최장로랑 같이 샀죠.

2. 옛날과 지금의 왕십리 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느낀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세요

임종진 장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있고, 옛날에도 술, 담배피우며 왔다 갔다 하는 농땡이 신자도 있었지요. 교회는 묵묵히 봉사하는 신자들로 인해 성장하는 겁니다.

3. 후 세대에 바라는 한 말씀 해주세요

임종진 장로: 하나님이 베푸신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온 개혁 보수주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근창 장로: 저는 선배 장로님들

을 정말 존경합니다. 원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영향을 지금도 제 자신이 받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들은 선배들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 합니다.



올 해가 백주년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앞으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그 설계도 속에는 교회의 건물도 지어야 하지만, 올바른 신앙 교육, 구제, 선교 등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속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장소에서 신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실천해 옮겼으면 합니다. ④

취재 : 장숙현 기자
사진 : 이종훈 기자

100년의 세월을 넘어
왕십리교회의 오늘

교회 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 6월 8일 주일예배를 장충체육관에서 드렸다.
오치용 담임목사의 글과 화보로 정리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

오치용 담임목사



2008년 6월 8일은 우리 왕십리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은혜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왕십리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성이 잘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기억해 드리고 교회의 역사를 담은 전시를 하면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왕십리 교회의 전통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가져온 관계의 복을 사랑마을 네트워크로 표현하였습니다. 30여개 단체와의 협약식은 우리 교회의 큰 재산이 될 것이며 우리 자녀 세대의 큰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Exodus 출애굽의 국민운동을 위한 동역자들을 얻었고 2007년 7월 8일 삼양월드컵경기장에서 있었던 1907년 평양대부흥의 100주년기념대회의 한국교회의 비전선포가 된 엑소더스 국민운동의 계승을 하는 대회로서의 성격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 자녀들의 찬양, 등의 퍼포먼스 속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꾸게 했습니다. 장충체육관은 2007년 예장총회의 평양대부흥운동 비전선포식 때 사용했는데 그 때에 연합으로 한 일에도 그 자리를 채우는 일에 걱정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우며 집회를 한 일을 주위가 놀라고 있습니다. 왕십리교회의 저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큰 감사는 성실한 일꾼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안된다, 할 수 없다, 왜 하느냐? 하는 자세가 아니라 된다, 해보자 라는 믿음의 자세로 섬긴 모든 분들이 돋보였습니다. 결국 이번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왕십리교회는 이제 새로운 백년 일백배의 축복을 향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층 5천석 예배당 및 사랑마을 센터를 주님 앞에 봉헌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마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같이 '왜 허비하느냐' 라는 말을 들었던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받아 복음과 함께 기념된 그 헌신같이 이번 장충체육관에서의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왕십리교회 역사와 함께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만방에 알리는 때에 같이 간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한 이번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협력하신 기관들, 교회들, 그리고 새가족들, 또한 그날 충분히 살핌을 받지 못한 분들까지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프로급 아마추어!

김귀라 부목사 / 온가족예배 기획총무



교회 설립 100주년 온가족 예배와 축제를 통하여 온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한마음으로 모이자는 열망은 2007년 한국 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예배보다 오히려 더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강렬하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준비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교회의 정해진 예산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의 눈높이는 이미 매스컴과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하여 한껏 높아있었다. 즉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일반 사회에서 진행하는 행사보다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 모두를 자극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프로다운 기질을 가지고 대회를 치루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는 아마추어의 한계를 번번이 느끼면서도 대회 당일 벌어질 온갖 상황에 대하여 8주간의 격렬한 분과별 토론과 지적을 바탕으로 대회를 준비하였다.

물론 이것은 이미 2002년도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장애인 초청 부활절연합예배, 2003년 GMS 총회 세계선교회 강북선교대회 유치경험, 2006년도에 있었던 세종대학교 온가족 예배와 그리고 2007년 한국 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사무국에서의 파견근무 참여 등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도 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총집결한 것이 이번 100주년 기념대회라고 하지만 그 때의 상황과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다. 2006년 온가족 예배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의 잔치로 규모면에서 비교가 안되었다. 그리고 2002년 부활절 연합예배나 2007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장애인 1천명과 함께하였지만 대회 자체의 진행을 맡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역시 일부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100주년 예배는 장애인 단체와 외국인 근로자들 왕십리 지역의 어르신 등 외부에서만 1500명 이상이 참가하였고 교회성도들이 예배의 회중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봉사자와 진행자들이 되었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수상자가 되는 다중적인 위치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화합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대회였다. 여호와를 찬양!

이번 대회에 숨겨진 에피소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1부 예배 시간중 '소향'의 등장이었다. 공연 시간 직전까지 소향은 도착하지 않았다. 예배 사회자인 나 자신이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 예배 무대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진기자의 도움을 받아 작은 메모지를 통하여 기획담당 전도사와 수많은 오고감이 있던 뒤 제시간에 소향이 도착했다는 메시지가 올라왔을 때의 그 아슬아슬함과 짜릿함이란...

두 번째는 이번 대회에 참석한 주요 초청 외빈들이었다. 문제는 이들의 얼굴을 모두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고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럴 때 발 빠르게 나선 두 분 장로님의 도움이 있었다.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영접실 앞에 든든하게 서서 눈치껏 웬지 누군가 자신을 맞아주기를 기다리는 듯한 분들을 향해서 인사하고 꽃을 꽂아드렸다고 한다. 99%가 초청 외빈이었다. 대단한 분들이다!

세 번째는 주요 네트워크 단체장들이나 각종 수상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대기석에서 기다리다가 사회자가 호명하면 순서대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앉아있는 자리나 모여드는 시간이 모두 달랐기에 무대 밑에서 자리 배치를 해야만 하는 스텝 장로님과 집사님들은 그야말로 팍팍성이었다.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200명이 넘는데다가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하며 개개인들이 무대 단상에 서는 보람도 있어야 한다는 이중적인 상황이 진행자를 어렵게 했다. 그러다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네트워크 협약패 전달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나와서 일일이 담임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대표로 한분만 패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차질없이 두가지에서 만족을 얻는 결과가 나왔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무엇보다도 뒷정리였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니 오후 4시가 넘었다. 밖으로 퇴장하는 성도들에게 기념품으로 우산을 나누어주는 일과, 장애우와 초청 손님들을 승차안내하기 위한

일, 쓰레기를 정리해서 한편으로 쌓아두는 일, 무대 플로어에 있는 의자들을 한자리로 모으는 일 등이 모든 일들이 청년 봉사자들의 마지막 몫이었다. 특히 끝날 무렵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장대비 속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와 교회에서 가지고 온 우리 장비와 다양한 기자재들이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했다. 예정에는 없었지만 대형 트럭을 불렀다. 장대비속에서의 조그마한 봉고차로 교회에 옮긴다는 일은 시간낭비였다. 체육관 곳곳에 떨어진 물건들과 쓰레기를 모두 정리하여 교회에 갖다 놓으니 저녁 8시가 되어 가고 있었다. 교회 뒷마당에 어마어마하게 쌓인 쓰레기를 직원들이 치우는 데만도 월요일 하루가 꼬박 걸렸다는 후문이다.

이제 100주년 기념대회는 끝났고 격려의 시간과 평가회도 모두 마쳤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겨진 100주년 기념예배와 축제는 사진, 영상으로만 남을 것이다. 이 대회를 위하여 직장에서 퇴근하여 늦은 밤까지 또는 조퇴하면서까지 마다않고 수고하였던 모든 분들과 실행총무님들 그리고 든든한 우산이 되어 주었던 준비위원장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장로님들 대회의 스케일과 색깔이 위축되려고 할 때마다 격려로 세워주신 담임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자를 100주년 기념대회 기획총무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린다. 







사랑의 마을 온가족예배

엑소더스 국민운동 100주년

트위크 축제



30F 100th
왕십리교회

30F 100th
왕십리교회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67년 중학교 1학년 때 송화재 권사님의 인도로 왕십리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72년부터 지금까지 유치부 교사로 26년 동안 봉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찬양대와 중창단으로 섬겼고 지금은 교사와 구역장(정릉1.2)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Q. 주일학교 교사로 26년 동안 수고해서 상을 받게 됐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족했는데 상을 받게 돼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계속 밀려오고 두렵기까지 했어요. 26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교사로 사용하셨는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더 사랑하고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Q. 교사를 하면서 기뻐던 일이나 보람됐던 일이 있다면?

교사의 직분은 정말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형편으로 정서적 안정이 되지 않았던 아이가 유치부에 와서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유치부 교사 모두가 사랑으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보살펴



유치부 지킴이 송재연 집사



줄 때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유년부로 올라갈 즈음에는 아이의 표정이 밝고 웃음이 가득하며 친구들과의 교제가 원만해졌습니다. 또한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Q. 이상적인 교사의 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말씀을 믿고 실천해 가는 교사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내 자식처럼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며 희생을 감수하는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을 대할 때 늘 밝게 웃으며 먼저 손 내밀고 안아주는 교사, 늘 사랑함을 느끼게 보여줄 수 있는 교사입니다.

Q.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들이 밝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부모나

교사에게 상처받아 자신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둠에 소망이 없듯이 아이들이 그늘 없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만만하지만 무례하지 않고 예의를 알고 남을 배려하며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해요.

Q.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세요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 주세요. 특히 유치부는 부모가 데려와야만 올 수 있는데 부모님들 사정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 아이들을 키운 경험으로 보면 학교 시험 때나 입학시험 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을 내심 불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길을 지켜주심으로 능력보다 더 크게 인도하심을 보았어요. 제발 자녀를 교회에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기자



-제5차 국제심방 보고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 ‘치유’, ‘자유’가 심방 중에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몽골로 향했다.

박동하 목사 / 몽골어 예배담당



몽골 울란바타르 공항은 한여름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입국심사대를 통과하고 나니 꽃다발을 든 바야르체첵 가족이 공항 대합실을 다 채웠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가족 모두가 나와 우릴 맞아주었다. 기대하지 못했던 터라 놀랍기도 했고 감격스럽기도 했다.

항공권 사정으로 짧게 잡힌 4박 5일의 여정은 빠듯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바로 심방을 시작했다. 첫 집은 두 달 전 한국에 들어왔다가 공항에서 입국심사대를 넘지 못하고 몽골로 돌아간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순종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시작된 국제심방 일정은 그야말로 생명을 추수하는 감격적인 시간의 연속이었다. 오랜 세월 만나지 못한 가족의 소식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로 몽골인들의 마음은 쉽게 열렸고 우린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생수와 같으니라.’ (잠 25:25)

잠언 말씀처럼 몽골 가족들에게 좋은 기별과 함께 생수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온 것이다.

생계를 잇기 위해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일하며 짧게는 4~5년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몽골인들... 현실적인 문제도, 영적인 상태도 어느 것 하나 풍족함 없이 나그네처럼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늘 마음이 안타까웠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난 가정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 같았다.

한나절 흠바람을 뚫고 산 넘고 물 건너가 만난 가정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슴은 뜨거웠고, 땅 밟기 하며 만난 라마 불교 동자승의 해맑은 미소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가난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동자승이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아픈 데가 다 낫냐고 묻는 모습에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느꼈고 우린 그 소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다.

두 달이라는 시한부 삶을 남긴 어느 어머니가 병상에서 동영상 통해 딸에게 남긴 가슴 아픈 사연, 라마불교에 심취했던 국가정보부원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 마지막 날 우리 차를 운전해주던 기사 가족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인 것까지 4박 5일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열매는 실로 놀라웠다. 



다시 은혜의 땅으로... 제2의 출애굽과 부흥을 위해

황기쁨 선교사



터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였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곳이고, 요한 계시록의 일곱 교회와 비잔틴 제국의 상징인 성 소피아 성당 등 중요한 성지들이 있었던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 인구의 99% 이상이 무슬림인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국가가 되었습니다.

손을 펴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은 저희 마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지혜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으며 양육할 때 아이들의 삶과 고백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2년 2개월의 세월을 돌아보며 저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터키로 2006년 1월 부르심을 받았고 터키의 출애굽과 부흥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첫 1년 반 정도는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였습니다. 타문화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2년이 지난 오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시간들은 터키 선교사로서의 준비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터키를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품을 수 있었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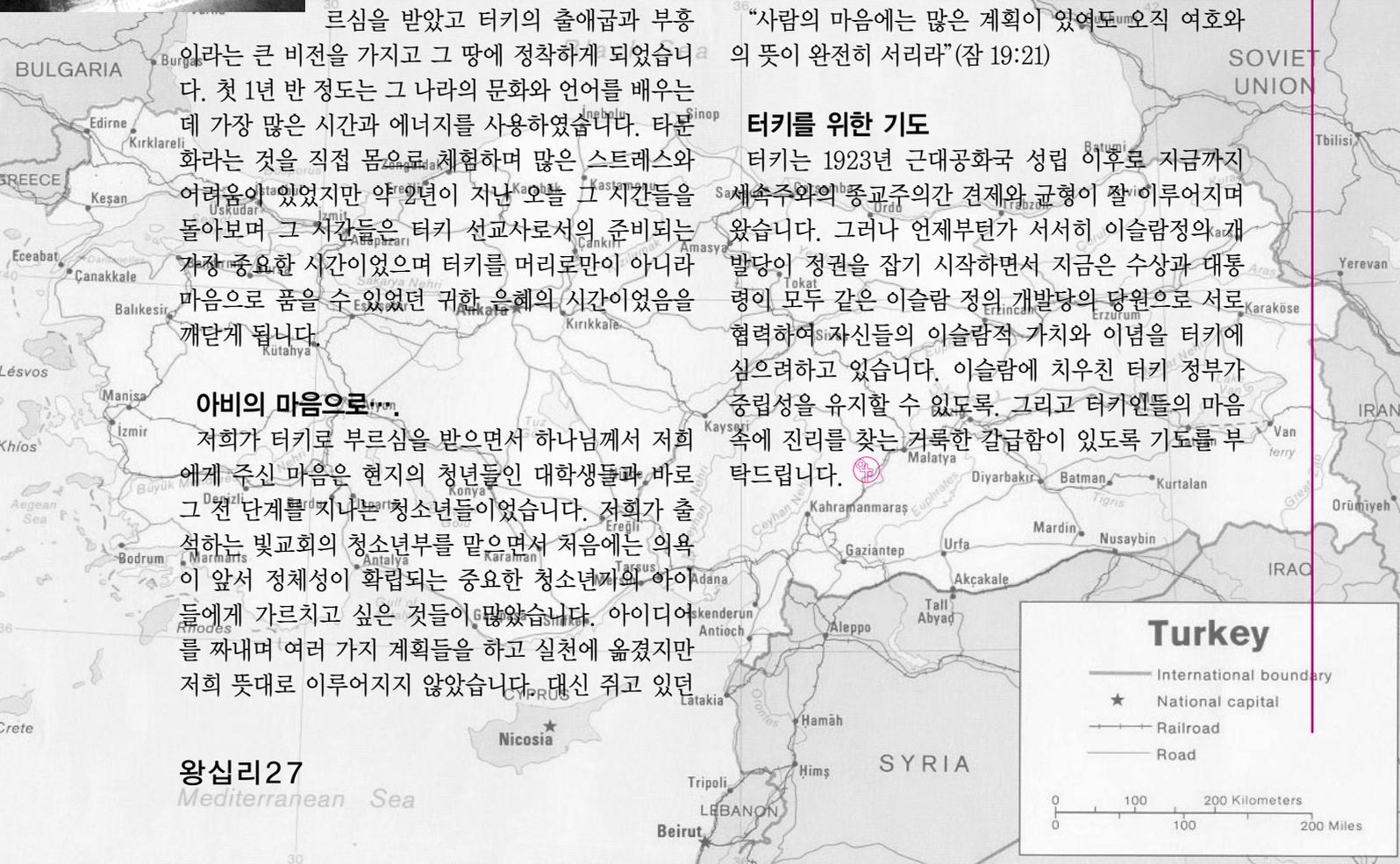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잠 19:21)

터키를 위한 기도

터키는 1923년 근대공화국 성립 이후로 지금까지 세속주의와 종교주의 간 견제와 균형이 잘 이루어지며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서서히 이슬람정의 개발당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수상과 대통령이 모두 같은 이슬람 정의 개발당의 당원으로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의 이슬람적 가치와 이념을 터키에 심으려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치우친 터키 정부가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터키인들의 마음 속에 진리를 찾는 거룩한 갈급함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저희가 터키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마음은 현지의 청년들인 대학생들과 바로 그 전 단계를 지나는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출석하는 빛교회의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 정체성이 확립되는 중요한 청소년부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짜내며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고 실천에 옮겼지만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쥐고 있던



Turkey

- International boundary
- National capital
- Railroad
- Road

0 100 200 Kilometers
0 100 200 Miles



아이들 건강식

한국 식품 영양 재단이 “미래의 주인공, 영양 상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체격은 커졌지만 체질은 약화된 요즘 아이들의 건강 문제를 집중 진단했다. 아침을 규칙적으로 먹는 아이가 아침식사를 거르는 아이에 비해 학업 성취도가 높고 비만율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면 어떤 상차림을 준비해야 할까?

★ 아침 밥을 꼭 먹어야 하는 3가지 이유

1) 아침을 먹는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아침 식사는 두뇌 회전에 필요한 영양분을 두루 공급해주어 오전 수업을 하는 동안 학습 능률을 높여준다. 사고력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길러준다.

2) 아침을 먹으면 건강해진다.

성장기 아이에게는 영양분을 자주 자주 공급해줘야 하는데 아침을 거르면 그만큼 영양분을 공급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점심과 저녁 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가 어려워진다.

3) 아침을 안 먹으면 살이 찌기 쉽다.

하루 세끼 중 한 끼를 안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와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원만한 소화 활동을 하지만 불규칙적인 식사는 인체가 그만큼 끼니를 굶는 ‘비상상태’에 대비해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또 아침 식사를 거르면서 오는 공복감 때문에 오후에 과식을 하게 되어 비만을 초래하게 된다.

★ 똑똑한 아이로 만드는 식생활법

엄마가 부지런해야 아이 머리가 좋아진다.

2003년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이들이 아침밥을 먹지 않는 이유 1위는 놀랍게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아서(29%)’라고 한다. 그 다음으로 ‘시간이 없어서(24%)’, ‘입맛이 없어서(24%)’, ‘기타(24%)’의 순이었다. 실제 맛벌이 등의 이유로 아이의 아침밥을 차려주지 못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가능한 한 아이의 아침밥은 꼭 챙겨주도록 하자.

★ 반찬의 가짓수가 많을수록 성적이 상위권이다



일본의 한 중학교 설문조사 결과 한 끼 식사당 섭취한 음식물의 가짓수가 많은 아이일수록 성적이 상위권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식탁이 풍성할수록 성적이 좋아진다는 것. 이는 반찬 가짓수가 많을수록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고 아이의 입맛도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단을 짜도록 하자.

★ 적당한 양의 식사를 해야 한다

아이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며 식사량은 너무 많거나 부족하지 않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 식사량이 너무 많으면 뇌가 피곤해지고 너무 적으면 뇌에 에너지가 모자라 집중력이 떨어진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인다

아이가 밤늦도록 잠자리에 들지 못하면 다음날 늦잠을 자게 된다. 또 일찍 일어난다 하더라도 밥맛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굳것질을 하게 되고 이것이 다음날 아침 식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갖게 하자.

★ 아침식사는 특히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로 차린다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와 싸우다 결국 지쳐서 아침을 굶겨 보내는 엄마들이 많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차려주는 것이다. 밥 먹기를 싫어한다면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빵이나 스프, 죽, 시리얼 같은 대용식품이라도 먹여 보내는 것이 좋다. 이밖에 평소 좋아하는 반찬을 아침상에 올리는 것도 아이들의 식욕을 돋우는 방법이다.

★ 일품요리로 시간을 절약한다

아이가 밥 먹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아침밥을 제대로 못 먹이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30분 일찍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만약 시간이 없다면 주먹밥이나 비빔밥, 볶음밥 등의 일품요리를 준비한다.

★ 패스트푸드는 성질 급한 아이를 만든다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으면 아이의 성질이 급해진다고 한다. 반면 조리 과정을 지켜 천천히 만든 음식을 먹고 자란 아이는 침착한 성격을 갖게 된다고. 평소 식사 시간에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운 아이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초조해하거나 긴장하는 일이 적다고 한다. 먹는 습관이 아이의 성격과도 연결되므로 평소에 밥을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 가공하지 않은 음식을 충분히 먹인다

될 수 있으면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조리할 때도 되도록이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것이 좋다. 몸에 좋지 않다고 밝혀진 음식들은 한결같이 가공한 음식이 대부분이다. 즉 흰쌀보다는 현미가 백설탕보다는 흑설탕이 마가린

보다는 참기름이 몸에 더 좋다.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와 같은 발효 식품들은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므로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일수록 아이의 머리도 좋아진다.

★ 씹는 음식을 먹인다

요즘 들어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선식 등을 먹는 가정이 많은데 두뇌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마시는 음식보다 씹는 음식이 효과적이다. 음식을 씹는 동작 자체만으로도 뇌에 자극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아침식사는 밤 사이 활동이 뜸했던 두뇌에 씹는 행동으로 자극을 주어 보다 활발하게 운동시켜주므로 충분히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한다.

★ 편식은 두뇌 발달의 적이다

두뇌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한데 편식을 하면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아이가 편식하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가능한 한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이는 식단으로 구성한다.

★ 간식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골고루 먹는 것이 몸과 머리에 좋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렵다면 간식으로 영양을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다. 그 날의 식단에서 부족한 영양소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부족한 영양소를 간식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단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간식 시간은 식사 시간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 네이버 블로그 중에서 퍼옴

첫째 주

사도신경

찬송 : 199장(구 234)

말씀 : 창세기 19:12~22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주기도문

롯은 하란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으며, 비록 부자가 된 이후에 욕심으로 소돔 땅을 선택한 사람이었으나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벧후 2:7-8).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성경이 그를 의롭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아브라함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뿔개', '감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 열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롯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안에 감춰버린 사람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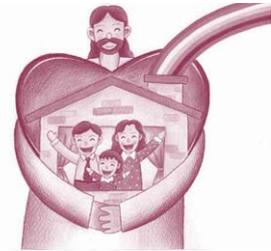
1.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롯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롯의 삶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자식을 바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욕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롯의 모습은 의인으로 불리던 성경의 다른 인물들과는 너무도 차이가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롯이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롯은 비록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알아보고 엎드려 절하였습니다(창19:1).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 롯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보면 너무도 연약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을

신앙의 부모가 됩니다



따라서 소돔을 선택한 것(창13:10-11), 천사를 해하려는 무리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주겠다고 한 것(창 19:8)을 보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롯을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그의 연약한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구원하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소돔 주변의 작은 성읍으로 몸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순종은 뭔가 모자란듯 보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언제나 불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3. 연약한 믿음은 영적권위를 잃게 한다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는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은 이삭의 모습은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딸들과 예비 사위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였으나, 롯의 예비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14절).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롯에게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적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 비록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지 가장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자녀를 향한 영적 권위를 가진 신앙의 부모가 됩시다.

제목

째 주간

사도신경

찬송 : 301장(구460)

말씀 : 삼상 1:6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므로 그 대적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주기도문

시대의 아픔을 가진 자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이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사무엘을 가지기 전에 그녀는 너무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괴로움에 더하여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와 비교 당하는 열등감과 그녀의 폭언에 많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픔을 가진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아픔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픔이 주님을 찾게 한다

본문은 한나가 임신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직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나 자체는 어떤 죄책감을 가질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브닌나의 괴롭힘은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한나는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간절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아픔은 주님을 찾게 만들어 줍니다. 아픔은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되는 확성기가 됩니다.

2. 아픔은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임신할 수 없는 이유는 당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적 아픔을 임신할 수 없는 아픔으로 표현

하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없는 시대로 아들이 없는 한나의 아픔을 경험하던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은 우리 자신만의 어려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불화나 이혼의 문제는 우리 시대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를 향해 아파하는 마음을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대의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3. 한나는 시대의 대안이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지도자 없는 시대에 지도자 사무엘을 가지게 됩니다. 한나 개인의 문제 해결은 한나가 살던 시대적 문제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그들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시대를 구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해결 받으려는 문제들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이 우리 시대의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깨지지 않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일 수 있지만 깨지고 상한 부분을 아름답게 극복해 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는 우리 시대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셋째 주간

사도신경
찬송 : 312장(구341)
말씀 : 출 10: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주기도문

본문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바로의 시대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적을 대하는 바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1.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삶

바로가 처음 경험한 작은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본 바로는 궁중의 요술사들에게 같은 것을 하도록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자 그때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찾아옵니다. 처음 두 재앙인 물이 피가 되는 재앙과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하게 됩니다(출 7:22; 8:7).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흉내 내려는 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재앙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

바로 요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는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말합니다(출 8:19). 바로 역시도 더 이상 요술사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재앙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는 결국 10가지 재앙이 다 찾아오고 나서야 자기의 완강한 고집을 꺾게 됩니다. 우

기적을 누리는 사람

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누릴 수 없습니다.

3. 기적을 고백하는 삶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계속 이 출애굽 사건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스스로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계속해서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 힘 있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대화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의 대화 주제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가족들과 함께 고백해 봅시다. 



넷째 주간

사도신경

찬송 : 85장(구85)

말씀 : 막 6:38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주기도문

가진 것을 바라보는 축복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남자만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서는 배고픈 무리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먹고 오게 하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왜 제자들에게 떡을 주라는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듣도록 합니다.

1.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이다

요 6:6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라고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창 22:2)이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욱의 고난(욱 1:13-2:10)이나,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여전히 대적들을 남겨두신 사사 시대의 정황(삿 3:2-3)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들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까? 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성도에게 있어서 삶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예수님께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으셨던 삶

의 고백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가 찾아 올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3.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사역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떡을 만들어 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가진 보잘 것 없는 떡 몇 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떡 몇 개를 드림으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마치 부모가 좋은 것이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에 우리를 참여시키시길 원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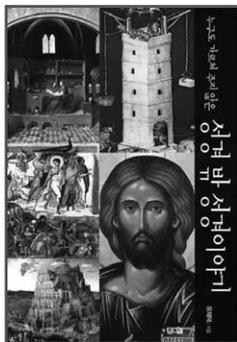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가정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가지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 가정에 없는 많은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어진 작은 것들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작은 것들에 대해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무명시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자신의 은사를 정확하게 찾고 개발하여 전문가가 된 사람, 도전적으로 삶을 개척하여 일찍부터 자기 분야에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금방 자신의 길을 찾아 곧바로 부르심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 없고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간 결과,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예수님의 사명이 집약된 공생애 3년.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시험은 30년의 알려지지 않은 시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다.

● 저자 / 역자 : 엘리시아 브리트 클로에 / 김일우 ● 출판사 : 예수전도단 ● 가격 : 9,500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성경 밖 성경이야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한 저자는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을 알기쉽게 소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책에서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성경과 배경지식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저자 : 유재덕 ● 출판사 : 도서출판 브니엘 ● 가격 : 12,000원



마커스 IS IT

In Spirit and In Truth(신령과 진정으로)의 의미를 가진 IS IT은 인터넷에서 '주의 장막에서'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룹이다. 이들의 깔끔한 보컬은 찬양의 내용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이 음반의 수록곡들은 예배음악으로도, 혼자 들으며 예배하기에 아주 좋은 잘 만들어진 음반이다.

● 가수 : IS IT ● 기획 / 배급 : 마커스 커뮤니티 / 인피니스 ● 가격 : 12,000원



정상을 넘어 시와그림5

2001년 결성되어 지금까지 한 명의 프로듀서와 한 명의 작곡자, 한 명의 보컬로 팀워크를 맞춘 이 들은 이번에도 '변함없는' 그들만의 색깔의 찬양을 들고 나왔다. 과거의 '항해자', '바람 속의 음성' 등과 같이 깊은 묵상이 담긴 멜로디와 가사를 이번 앨범에서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 가수 : 시와그림 ● 기획 / 배급 : Bee Company / 서울음반 ● 가격 : 11,000원

가족

신을소

순백의 설원
 긴 동면에서 깨어난 북극곰 가족
 젓먹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선다.
 몇 달을 굶은 끝에
 마지막 남은 지방질까지 녹여
 젓을 물리는 암컷
 마냥 즐거운 듯 눈썰매 타는 어린 것들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나
 최고선을 지향하는 종교의 개입도 없이
 갈등이나 반목의 언어
 그 이전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맹목이다.
 분별이 아닌 포섭(包攝),
 희생이니 절제니 하는 굴레의 장치들로
 사치스런 말들의 치장은 하지 말자.
 사랑은 말보다 먼저 오고
 연민은 언제나 평상의 보폭보다
 재빠르지 않더냐.
 진정한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두 팔로
 두 손으로 하는 것
 가족은 존재할 뿐 만들어 지지 않는다.

태초에 하나님은
 흙으로 자신의 분신을 만드시고
 그 분신의 갈비뼈로
 가족을 만든
 이 땅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우주
 가족은 분해될 수 없는 핵
 함께 살아야 할 식구만이 아니라
 함께 죽어야 할 존재들로 주어진
 결국은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랑의 고리.



시인 신을소(본명 : 신현순)

서울출생.
 월간문예등단. 한국문협(문학교류위원).
 한국기독교시협(심의회원). 총신문학회(부회장).
 한국기독교문협(이사). 남양주시협회장역임.
 공동주택문화신문 편집인 겸 주간역임.
 총회신학교교수역임. 한국기독교 시 문학상수상.
 시집 : 황금꽃바구니. 푸른 눈빛으로 오시는 이여.
 꽃 섬. 시인의 안부. 의 논저.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_____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 백봉산 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 주일 찬양 예배	오후 3시
• 몽골어예배/중국어예배 :	오후 2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0시 30분
• 2부 :	동절기 오후 7시 00분
	하절기 오후 7시 30분

기도회

• 새벽 기도회 1부	매일 새벽 5시
• 새벽 기도회 2부	매일 새벽 6시
•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영아부	오전 11시
• 유치부	오전 11시
• 유년·초등·중등·고등부	오전 9시
• 청년부(주일 4부)	오후 1시

▶ 성경공부 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 1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장년 3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